

국민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실에 대한 의식¹⁾

The consciousness of children's room of the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university students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안 옥 희
강 사 박 인 전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
Assistant Prof.: Ok Hee An
Lecturer: In Jeon Park

〈 목 차 〉

I. 서 론	IV. 결론
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 및 고찰	

〈Abstract〉

This study were planned with the purposes to make clear the mother's understanding of children's room and to offer the basic data for the guidance and the effective preparation of chlidren's room and the children's residing environment in addition, by grasping and comparing the cosciousness of children's room of the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were 212 4th-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188 universty students living in Taegu.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methods and analyzed through SPSS PC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

1. The greater part of mothers recognized that the children's room is necessarily needed to children. 66%(69%) among all subjects perceived that the adequate period of sleeping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is before the entrance of elementary school.

1) - 시설복지적 측면에서 본 아동공간에 관한 연구 (IV) -
- A study on children's space from a welfare viewpoint (IV) -

It was found that in the children's hope for the possession of their room, the majority of mothers perceived that their childrens very wanted to have their own room. And the greater part of mothers perceived that the environmental preparation of children's room have an effect on their personality.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ther's consciousness of the necessity of children's room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family numbers, the order of birth, monthly income, housewife's education level, the numbers of room.

The adequate period of sleeping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variables as children's sex, husband's age and occupation, monthly income, husband and housewife's educational level.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갖고 사 하는데, 어린이에게 있어서도 주거환경인 아동실이 갖는 공간기능의 비중은 매우 크다. 아동기는 우리 일생을 통하여 그 어느시기보다도 중요한 시기로서, 아동에게 어떠한 환경을 제공하였느냐는 그 아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즉, 주거과밀과 유아사망율에 관한 연구나 가족의 건강에 관한 연구, 자녀의 학업성취(이경희외, 1993), 아동의 성격형성에 관한 연구(한말숙, 1990)등을 보면 아동기에 제공받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아동기에 형성된 성격은 일생동안 거의 변화되지 않고 고정되므로써 성인의 행동 성향이 이미 어린시절에 결정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이강민, 1989). 이와 같이 주거 생활공간과 주거 환경조성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성장 및 성격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필요와 욕구, 흥미, 발달단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시설, 유치원 및 유아원,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적 공간에 있어서는 그 시설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최소한의 시설규정으로 보호받고 있음에 반해, 어린이들이 방과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 대해서는 사회 및 정부적 차원에서 아무런 규제를 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정환경이 학교환

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해 보다 강한 영향을 지닌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개인적인 환경이자 법적차원에서의 시설규정이 없는 주택내 아동공간에 대하여 복지적 시점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복지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데 근래에 이르러 복지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의 서비스로 보고 있다(김영모, 198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 복지란 전 아동(특수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 또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성영혜, 1993).

자녀실을 복지적 측면에서 계획할 때에는 거주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거주인이 자녀일 경우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중이라는 사실을 배려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설비나 기구를 성장단계에 맞추어 변경가능하게 하고 한 방을 둘이 사용하다가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간단한 구조적 변경도 가능하여야 하며, 아동의 행동특성이 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리의 처리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안옥희, 1993). 그리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성인으로서 사적인 생활행위를 자기방에서 전부할 수 있

도복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자기취향을 살린 공간계획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들도 복지적 시각으로 아동공간에 관한 일련의 고찰을 하였다.(안지연외, 1993, 박인전외, 1994a, 박인전외, 1994b).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공간과 아동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아동의 제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중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나아가 아동실 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조성에 큰 영향력 내지 권한이 있는 어머니측의 고찰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녀실 조성과 사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를 도와주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자녀를 둔 부모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아동기 자녀의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의 어머니로 한정된 것은 학동 중기의 아동은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느끼며 청년후기 이후의 성인들은 부모와 유사하다는 느낌때문에 부모에게 가까움을 느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나 동일시보다는 자율과 독립에 대한 욕구를 더 중요시 한다(김태련외, 1987)는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긴밀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 심리적 측면에서의 공간 역할은 두 집단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자기만의 세계와 비밀을 가지며 자아의 형성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므로 자기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사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대학생은 주거공간내에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고 또한 심리적 불안에서 탈피하여 풍부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전원적인 환경과 정원이 있는 주거를 원한다(김희정, 1990). 이처럼 공간의 역할이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층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의식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아동실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학생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특성과 이미 아동공간조성을 경험한 대학생 어머니들의 특성은 6-10년간의 시대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전반의 의식 향상을 비롯하여 주택내 공간할애에 큰 영향을 주는 인적요소인 가족수 및 자녀수의 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이들 두 집단간의 자녀실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아동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 실태 파악과 동시에 이미 아동공간 형성을 경험한 사람들로 부터의 경험에 의한 제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의 아동공간 형성의 방향 제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아동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이미 아동기를 거친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실에 대한 의식의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 및 자녀실에 대한 인식을 밝힘과 동시에 자녀실과 자녀의 주거환경을 포함한 생활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학교 4-6학년의 어머니와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자료의 미비점을 일부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는 1993년 6월에 실시하였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은 제외하고 국민학생 자녀의 어머니 집단 221부와 대학생 자녀의 어머니 집단 188부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 대상 자녀의 일반적 특성, 자녀실에 대한 어머

니의 의식을 알아 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과 가족의 월수입, 주거 소유 형태, 주거양식, 방수, 주거 환경, 가족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상 자녀의 일반적 특성으로 자녀의 성별 및 출생순위를 알아 본다.

둘째, 자녀실에 대한 어머니들의 의식을 알아 보는 문항으로 자녀실의 필요성 여부 및 필요시 그 이유, 자녀의 침실사용 형태, 자녀와의 취침 분리, 이성형제와의 취침 분리, 자녀의 자녀실 소유희망도 및 그 이유, 자녀실 위치, 자녀실 내부계획시 고려사항, 자녀실의 가구, 물품 교체 시기, 자녀실의 가구 또는 용품 구입시 고려사항, 자녀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실의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한 어머니의 확신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으며 우선,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주로, χ^2 검정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자녀실에 대한 어머니의 의식

1) 자녀실에 대한 어머니 의식의 일반적 경향

자녀실에 대한 어머니의 의식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다.

<표 1-1>을 보면, 자녀실의 필요성에 관한 의식은 약 74%와 68%(각각 국민학생, 대학생)의 어머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 자녀실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부 기회의 증대보다 자녀의 독립심과 자립성 고양을 이유로 든 것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 자녀들의 자기방 소유에 대한 희망도는 “무척 원할 것”이라는 답이 약 72%와 85%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기방을 무척 갖고 싶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실의 필

요성 보다 자녀들이 희망한 것으로 추측하는 의식이 높아 자녀들이 보다 자기공간을 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행연구(박인전, 1994a) 결과에 의하면 자녀실이 있는 경우가 90%가 넘지만 혼자 사용하는 경우만 자기공간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18.7%만이 독립된 자기공간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의 인식 보다 실태는 훨씬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윤정애(1993)의 연구에서 대학생은 63%가 독립된 자기방을 가지고 있어 이 또한 어머니의 인식 보다 확보율이 낮으나 국민학생의 경우보다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민학교 4-6학년의 독립된 자녀실 확보는 25%-30.8%로(湯川, 1985) 주택사정이 심각하다는 일본도 우리나라의 실태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특히 국민학생의 경우 독립된 자기방의 확보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방을 원하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은 국민학생 어머니의 경우 “방해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3.8%로 가장 높은 반면, 대학생 어머니의 경우 “부모님과 다른 가족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민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의 응답은 높아만 가는 어머니들의 교육열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와는 달리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의 응답은 많은 형제, 가족속에서 자기만의 방을 원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인전, 1994b)에서 자녀가 자녀실을 원하는 이유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어”가 51%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민학생 어머니와 자녀의 의견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실을 모자 모두 공부방으로 인식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실의 역할은 아동이 주택내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즉, 취침, 놀이, 공부, 수납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자녀실의 역할에 대한 국민학생 어머니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며 국민학생 자신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부모와의 적절한 취침분리시기에 있어서는 5세 이전이나 6~7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두 집단 모두 전체의 65.8%와 69.2%를 차지해 국민학교

〈표 1-1〉 자녀실에 대한 어머니 인식의 일반적 경향

(국민학생 N=221, 대학생 N=188)¹⁾

변 수	집 단	국민학생	대학생	변 수	집 단	국민학생	대학생
		%	%			%	%
자녀실의 필요성 여부	필요 불필요 ¹⁾	73.9 56.1	67.6 32.4	자녀의 자기방 소수에 대한 희망	무척 원할 것이다. 식구들 중 누군가가 같이 써도 괜찮다고 할 것이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72.1 22.8	84.6 14.4
	χ^2 값 및 유의도		1.769		χ^2 값 및 유의도		5.1 1.1
자녀실 필요시 그이유	공부기회증대 독립심·자립심 교양 부부공간필요 기 타	31.8 65.0 1.4 1.9	27.1 67.6 3.7 1.6	자기방을 원하는 이유	방해없이 공부가능 장식하고 싶어서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기 타	43.8 30.2 20.0 5.8	21.3 16.0 56.4 6.4
	χ^2 값 및 유의도		0.916		χ^2 값 및 유의도		9.398***
부모와의 적절한 취침분리 시기	5세 이전 6세-7세 8세-9세 10세 이후	30.3 35.3 16.7 17.6	36.2 33.0 16.5 14.4	형제가 각방을 원할시 대처방법	커튼, 칸막이 사용 가구배치를 달리함 자녀에게 이해시킴 이사를 감 기 타	5.7 23.3 56.7 12.9 1.4	3.7 27.7 59.6 9.0 0.0
	χ^2 값 및 유의도		.194		χ^2 값 및 유의도		60.267***
실제 분리여부	예 아니오	50.7 49.3	53.2 46.8	자녀실의 위치를 정할 때 고려점	부부실과의 인접정도 자연환경(일광·통풍) 방의 크기 기 타	17.4 67.6 11.0 4.1	19.7 62.2 14.9 3.2
	χ^2 값 및 유의도		0.306		χ^2 값 및 유의도		3.060
분리되지 못한 이유	방이 모자라서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미처 생각지 못해서 기 타	47.8 47.1 1.5 3.7	54.5 21.6 15.9 8.0	자녀실의 내부계획 시 고려점	가구 선정 가구 배치 벽지, 바닥지 그외 장식	16.4 41.1 28.5 14.0	24.5 45.7 27.7 2.1
	χ^2 값 및 유의도		8.159		χ^2 값 및 유의도		1.778
이성형제와의 적절한 취침분리	7세 이전 8-9세 10세 11세 이상	26.7 13.1 21.7 38.5	52.7 13.8 9.0 24.5	자녀실의 주된 색조(바닥)	흰색, 회색계통 붉은 계통 푸른 계통 노란 계통 기 타	41.1 0.9 3.3 52.3 2.3	26.1 1.6 5.3 61.7 5.3
	χ^2 값 및 유의도		8.159**		χ^2 값 및 유의도		9.872**
실제분리 여부	예 아니오	39.9 60.1	58.0 42.0	자녀실의 주된 색조(벽)	흰색, 회색 계통 붉은 계통 푸른 계통 노란 계통 기 타	81.2 2.8 7.5 7.0 1.4	72.3 4.3 14.3 5.9 3.2
	χ^2 값 및 유의도		35.578***		χ^2 값 및 유의도		5.981
자녀실의 가구, 물품 구입시 의사결정	부부의사로 결정 부모와 자녀가 결정 자녀의 의사로 결정 기 타	18.6 74.2 6.3 0.9	20.2 75.0 4.8 0.0	자녀실의 주된 색조(천장)	흰색 회색계통 붉은 계통 푸른 계통 노란 계통 기 타	77.9 1.9 11.7 7.0 1.4	80.3 2.1 7.4 6.9 3.2
	χ^2 값 및 유의도		2.310		χ^2 값 및 유의도		2.063
자녀실의 가구, 물품 교체시기	성장단계에 맞게 아이가 싫증을 낼때 오래되고 낡았을 때 기 타	65.6 2.7 2.3	61.5 5.3 8.0	자녀실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 정보나 문헌에 의존 방법을 몰라 실천못함 전혀 생각해 본일 없음 기 타	59. 10.8 16.9 8.0 5.2	54.0 14.4 18.6 12.2 4.8
	χ^2 값 및 유의도		2.305		χ^2 값 및 유의도		4.746
자녀실의 가구, 물품 구입시 고려사항	실용성 장식성 가 격 장래성 기 타	82.7 2.3 2.3 12.3 0.5	85.6 8.0 6.4 0.0 0.0	자녀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분명히 영향이 있다. 어느정도 있다. 무관하다. 기 타	24.7 67.1 6.4 1.8	32.4 63.3 4.3 0.0
	χ^2 값 및 유의도		5.785		χ^2 값 및 유의도		3.752

1) 불필요 : 있고 없음에 상관 없다. 그다지 필요없다, 필요없다를 합함.

注 : 변인에 따라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빈도합계 차이가 있음.

*p<.05 **p<.01 ***p<.001

입학 이전에 부모와 떨어져 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의 분리 여부에 있어서는 대략 1/2 정도의 어머니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시기에 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그 시기에 분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두집단 모두 방이 모자라서 혹은 아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선행연구(박인전의, 1994a)결과, 국민학교 저학년 때 자기방을 갖게 되는 비율이 많았으며 그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에 아동실 분리시기를 국민학교 취학전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의식은 이보다 좀더 빠르게 실제분리는 반정도가 의식과 같은 시기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취침분리는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됨으로 여러 측면에서의 고려를 종합하여 적절한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의식측면에서 실태보다 좀더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거환경 속에서의 아동실의 위치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국민학교 입학 전후로 제시한다.

이성형제와 적절한 취침분리시기는 7세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대학생 집단의 경우 52.7%를 차지한 반면, 국민학생의 경우는 26%를 차지해 현재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국민학생 자녀의 어머니들 보다 가급적 이성형제와 취침 분리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가 한방을 사용하던 중 자녀가 각방을 원할때 부모님들의 대처방법으로 자녀를 이해시킨다라는 대답이 각각 약 57%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어쩔수 없는 상황을 자녀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대처방안이므로 이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독립된 공간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구배치를 달리하거나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심리적인 공간 분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자녀실의 위치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일광, 통풍등의 자연환경이 전체의 약 68%

와 6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써 자녀들의 건강 및 밝은 성격형성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자연환경인 일광, 통풍이라는 것을 어머니들이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연구에서도 주택내에 일광이 필요한 곳으로 거실, 아동실의 순으로 꼽고 있어(岩田, 1988)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실의 자연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실의 내부계획시 고려사항에 있어서는 두집단 모두 방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가구배치를 가장 중요시 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체적인 방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벽지와 바닥지를 중요시 하였다.

자녀실의 가구나 물품구입시 의사결정은 부모나 자녀가 함께 결정한다가 전체의 약 74%와 75%로 나타나 다수의 부모들이 자녀의 의견을 대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실의 가구나 물품을 교체할때 그 적절한 시기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필요할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제품이 오래되고 낡았을때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실의 가구나 물품을 구입할 때 고려사항으로 실용성이 약 83%와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의식이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나, 아동가구는 크기조절이 가능한 융통성있는 것을 선택하면 성장에 따라 새로 가구를 구입하지 않고도 자녀의 신체 특성에 맞추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실의 환경조성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알아본 결과 “어느정도 미친다”(67%, 63%)와 “분명히 미친다”(25%, 32%)의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으로 어머니들은 환경과 자녀의 체발달에 영향이 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녀실을 효과적으로 조성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가 각각 59%와 50%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음에 반해, 정보나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경우는 불과 11%와 14%에 그치고 있어 어머니들의 나름대로의 지식 수준에 대한 여유가 있으므로 그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부모의 역할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실의 주된 색조를 알아 본 결과 벽과 천장은 주로 흰색 및 회색의 무채색(벽: 81%와 72%, 천장: 78%와 80%)이며, 바닥은 노란계통이 52%와 62%, 흰색 및 회색계통이 41%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닥인 경우 장판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정 도임을 시사한다.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실에 대한 어머니의 의식

자녀실에 대한 어머니의 의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를 실시하여 검정하였다.(〈표 1-2〉에서〈표 1-11〉)

(1) 자녀실의 필요성 및 그 이유

자녀실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두집단 모두에서 유의차가 인정된 것은 주부 학력이며, 가족수, 자녀의 출생순위, 월수입은 대학생 어머니집단에서, 주거소유형태는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표 1-2)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가족수가 3명인 경우는 4명이나 5명 이상의 경우 보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순위가 외동인 경우가 맏이나 중간의 경우에 비해 또한 월수입이 많을수록 “반드시 필요하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족수나 자녀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정내 월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자기방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두집단 모두에서 유의차가 인정된 주부학력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실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여성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식에 따른 행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실이 필요한 이유는 남편학력은 두집단 모두에서, 주부학력은 국민학생 어머니 집단에서, 방수는 대학생 어머니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로써 자녀실의 필요성 및 그 이유에 대한 의식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2) 자녀와의 취침분리

자녀와 부모와의 적절한 취침 분리시키는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자녀의 성별, 남편의 연령, 주부학력에 따라,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남편의 직업,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표 1-3), 두집단 모두 남편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분리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특히 남편의 연령이 적을수록 5세 이전과 같이 이혼시기가 부모와의 취침 분리시기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남편의 직업이 근로직이거나 숙련적인 경우보다 전문직일수록, 그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5세이전이 부모와의 취침 분리시기로 가장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취침 분리여부는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월수입, 방수, 남편학력에 따라,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집단 모두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국민학생의 경우 맏이와 막내가, 대학생의 경우 중간과 외동이 실제로 부모와의 취침분리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실시하였다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그 시기에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있어서는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방수,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남편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방수가 적을수록 방이 모자라서 부모와의 취침분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방수가 많을수록 아이가 원치 않아서 취침 분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3) 이성형제와의 취침분리

이성형제와의 적절한 취침 분리시키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서만 남편의 연령, 주부의 연령, 월수입, 방수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1-4). 즉 남편과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내 월소득이 높을수록 7세이전이 이성형제와의 취침 분리시기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방수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표 1-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실의 필요성 여부 및 필요시 그 이유

(국민학생 N=221, 대학생 N=188) 注

독립변인	자녀실의 필요성 여부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필 요	불필요 ¹⁾		필 요	불필요	
가족수	3명이하	66.7	33.3	1.945	100.0	0.0	6.159*
	4명	72.0	28.0		66.7	33.3	
	5명이상	79.4	20.6		65.0	35.0	
자녀의 출생순위	만 이	74.9	25.1	2.127	63.1	39.9	7.883*
	막 내	75.0	25.0		86.7	13.3	
	중 간	100.0	0.0		66.7	33.3	
	외 동	64.3	35.7		100.0	0.0	
월수입	100만원미만	71.4)	28.6	0.807	53.3	46.7	6.447*
	100-149만원	71.6)	28.4		56.2	43.8	
	150만원이상	77.0)	23.0		73.8	26.2	
주부의 학력	중졸이하	61.4	38.6	8.409**	60.0	40.0	10.087**
	고졸	78.2	21.8		66.0	34.0	
	대졸이상				95.7	4.3	
주거소유 형 태	자가	82.1	17.9	7.086**	69.0	31.0	0.382
	비자가 ²⁾	64.8	35.2		61.8	38.2	
독립변인	자녀실의 필요성 여부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공부기회 중대	독립심·자립심 고양		공부기회 중대	독립심·자립심 고양	
남편의 학력	중졸이하	54.1	45.9	11.356**	10.5	89.5	9.612**
	고졸	25.2	74.8		39.2	60.8	
	대졸이상	37.3	62.7		21.1	78.9	
주부의 학력	중졸이하	41.8	58.2	6.950*	27.4	72.6	4.981
	고졸	26.8	73.2		33.7	66.3	
	대졸이상	50.0	50.0		9.5	90.5	
방의 수	2개이하	33.3	66.7	0.039	14.3	85.7	17.276***
	3개	32.4	67.6		40.4	59.6	
	4개이상	33.3	66.7		11.5	88.5	

1) 불필요 : '있고 없음에 상관 없다', '그다지 필요없다',
'필요없다'를 합한 것을 말함.

*p<.05, **p<.01, ***p<.001

2) 비자가 : 부분전세, 독채전세, 월세를 합한 것을 말함

注 : 변인에 따라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빈도합계 차이가 있음.

〈표 1-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와의 취침 분리

독립변인	자녀와의 적절한 취침분리 시기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5세 이하	6-7세	8-9세	10세이상	계		5세이하	6-7세	8-9세	10세이상	계	
자녀 성별	남	26(24.5)	40(37.7)	25(23.6)	15(14.2)	106	10.654**	28(28.9)	33(34.0)	19(19.6)	17(17.5)	97	5.187
여		41(36.0)	38(33.3)	11(9.6)	24(21.1)	114		40(43.5)	29(31.5)	13(14.1)	10(10.9)	92	
남편 연령 (세)	39이하	36(36.7)	34(34.7)	14(14.3)	14(14.3)	98	12.737*	1(100.0)	0(0.0)	0(0.0)	0(0.0)	3.822	
40-49		31(26.3)	43(36.4)	22(18.6)	22(18.6)	118		26(34.2)	25(32.9)	11(14.5)	14(18.4)		
50이상		0(0.0)	1(25.0)	0(0.0)	3(75.0)	4		41(36.6)	37(33.0)	21(18.8)	13(11.6)		
남편 직업	근로·숙련	9(16.4)	20(36.4)	11(20.0)	15(27.3)	55	14.947	3(16.7)	4(22.2)	5(27.8)	6(33.3)	18	17.105*
	판매직	19(35.2)	16(29.6)	11(20.4)	8(14.8)	54		23(31.9)	25(34.7)	14(19.4)	10(13.9)	72	
	사무직	25(35.2)	25(35.2)	8(11.3)	13(18.3)	71		19(34.5)	21(38.2)	7(12.7)	8(14.5)	55	
	관리·전문	14(35.9)	17(43.6)	6(15.4)	2(5.1)	39		21(55.3)	9(23.7)	6(15.8)	2(5.3)	38	
월 수입	100미만	12(23.5)	20(39.2)	8(15.7)	11(21.6)	51	3.117	1(6.7)	7(46.7)	2(13.3)	5(33.3)	15	14.109*
	100-149	26(32.1)	27(33.3)	12(14.8)	16(19.8)	81		15(31.3)	13(27.1)	10(20.8)	10(20.8)	48	
	150이상	29(33.0)	31(35.2)	16(18.2)	12(13.6)	88		52(41.3)	42(33.3)	20(15.9)	12(9.5)	126	
남편 학력	중졸이하	6(15.8)	13(34.2)	8(21.1)	11(28.9)	38	18.162**	4(20.0)	6(30.0)	6(30.0)	4(20.0)	20	14.909*
	고졸	34(29.3)	47(40.5)	13(11.2)	22(19.0)	116		23(27.1)	31(36.5)	16(18.8)	15(17.6)	85	
	대졸이상	25(46.3)	16(29.6)	10(18.5)	3(5.6)	54		39(50.6)	22(28.6)	10(13.0)	6(7.8)	77	
주부 학력	중졸이하	12(16.9)	29(40.8)	10(14.1)	20(28.2)	71	16.300**	18(27.7)	22(33.8)	14(21.5)	11(16.9)	65	6.743
	고졸 대졸이상	44(36.4)	42(34.7)	19(15.7)	16(13.2)	121		37(37.0)	32(32.0)	16(16.0)	15(15.0)	100	
		9(52.9)	5(29.4)	2(11.8)	1(5.9)	17		12(52.2)	8(34.8)	2(8.7)	1(4.3)	23	
실 제 분 리 여 부													
독립변인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예	아 니 오	계		예	아 니 오	계					
가족수	3명 이하	8(30.8)	18(69.2)	26	4.695	10(83.3)	2(16.7)	12	8.438**				
	4명	66(53.2)	58(46.8)	124		37(61.7)	23(38.3)	60					
	5명 이상	36(53.7)	31(46.3)	67		54(46.2)	63(53.8)	117					
출생순위	말이	91(53.5)	79(46.5)	170	9.007*	51(45.9)	60(54.1)	111	10.135**				
	막내	10(66.7)	5(33.3)	15		7(46.7)	8(53.3)	15					
	중간	1(50.0)	1(50.0)	2		35(64.8)	19(35.2)	54					
	외동	8(26.7)	22(73.3)	30		8(88.9)	1(11.1)	9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4(28.0)	36(72.0)	50	13.414***	7(46.7)	8(53.3)	15	0.301				
	100-149만원	46(56.8)	35(43.2)	81		26(54.2)	22(45.8)	48					
	150만원 이상	50(58.1)	36(41.9)	86		68(54.0)	58(46.0)	126					
방의 수	2개 이하	46(43.4)	60(56.6)	106	6.286*	10(71.4)	4(28.6)	14	1.974				
	3개	44(53.8)	37(46.3)	80		59(51.8)	55(48.2)	114					
	4개 이상	21(67.7)	10(32.3)	31		32(52.5)	29(47.5)	61					
남편 학력	중졸이하	11(28.9)	27(71.1)	38	11.516**	7(35.0)	13(65.0)	20	2.848				
	고졸	58(51.3)	55(48.7)	113		47(55.3)	38(44.7)	85					
	대졸이상	35(64.8)	19(35.2)	54		42(54.5)	35(45.5)	77					
분 리 되 지 못 한 이 유													
독립변인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방이 모자라서	아이가 원치 않아서	계		방이 모자라서	아이가 원치 않아서	계					
방의 수	2개 이하	45(60.0)	30(40.0)	75	7.164*	2(50.0)	2(50.0)	4	1.112				
	3개	16(40.0)	24(60.0)	40		32(74.4)	11(25.6)	43					
	4개 이상	4(28.6)	10(71.4)	14		14(70.0)	6(30.0)	20					
남편 학력	중졸이하	17(56.7)	13(43.3)	30	1.211	8(80.0)	2(20.0)	10	6.027*				
	고졸	35(52.2)	32(47.8)	67		24(82.8)	5(17.2)	29					
	대졸이상	11(42.3)	15(57.7)	26		14(53.8)	12(46.2)	26					
주부 학력	중졸이하	26(54.2)	22(45.8)	48	9.155**	21(80.8)	5(19.2)	26	2.487				
	고졸	38(55.9)	30(44.1)	68		24(70.6)	10(29.4)	34					
	대졸이상	0(0.0)	8(100.0)	8		3(50.0)	3(50.0)	6					

*p<.05, **p<.01, ***p<.001

〈표 1-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이성형제와의 취침분리

독립 변인	이성형제와의 적절한 취침분리 시기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2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2 값 및 유의도
		9세이전	8-9세	10세	11세이상	계		7세이전	8-9세	10세	11세이상	계	
남편 연령 (세)	39이하	30(30.6)	10(10.2)	22(22.4)	36(36.7)	98	5.469	0(0.0)	1(100.)	0(0.0)	0(0.0)	1	14.446*
	40-49	26(22.0)	19(16.1)	26(22.0)	47(39.8)	118		33(43.4)	9(11.8)	11(14.5)	23(30.3)	76	
	50이상	2(50.0)	0(0.7)	0(0.0)	2(50.0)	4		67(59.8)	16(14.3)	5(5.4)	23(20.5)	112	
주부 연령 (세)	39이하	47(25.7)	24(13.1)	42(23.1)	70(38.3)	183	2.428	0(0.0)	0(0.0)	1(100.)	0(0.0)	1	14.161*
	40-49	11(30.6)	5(13.9)	6(16.7)	14(38.9)	36		68(49.3)	19(13.8)	13(9.4)	38(27.5)	138	
	50이상	0(0.0)	0(0.0)	0(0.0)	1(100.)	1		32(64.0)	7(14.0)	3(6.0)	8(16.0)	50	
월 수입	100이하	14(27.5)	7(13.7)	10(19.6)	20(39.2)	51	0.869	5(33.3)	2(13.3)	0(0.0)	8(53.3)	15	13.530*
	100-149	21(25.9)	11(13.6)	20(24.7)	29(35.8)	81		21(43.8)	7(14.6)	4(8.3)	16(33.3)	48	
	150이상	23(26.1)	11(12.5)	18(20.5)	36(40.9)	88		74(58.7)	17(13.5)	13(10.3)	22(17.5)	126	
방수 (개)	2이하	28(26.2)	13(12.1)	23(21.5)	43(40.2)	107	1.248	5(35.7)	0(0.0)	1(7.1)	8(57.1)	14	12.561*
	3	21(26.3)	10(12.5)	19(23.8)	30(37.5)	80		62(54.4)	16(14.0)	8(7.0)	28(24.6)	114	
	4이상	9(27.3)	6(18.2)	6(18.2)	12(36.4)	33		33(54.1)	16(16.4)	8(13.1)	10(16.4)	61	
실 세 분 리 여 부													
독립변인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2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2 값 및 유의도				
		예	아 니 오	계		예	아 니 오	계					
주부연령(세)	39이하	52(41.6)	73(58.4)	125	1.934	1(100.)	0(0.0)	1	6.926*				
	40-49	6(28.6)	15(71.4)	21		69(63.9)	39(36.1)	108					
	50이상	0(0.0)	1(100.)	1		14(40.0)	21(60.0)	35					
주거소유형태	자 가	33(45.2)	40(54.8)	73	1.509	78(62.9)	46(37.1)	124	6.377**				
	비 자 가	24(33.8)	47(66.2)	71		6(30.0)	14(70.0)	20					
월수입(만원)	100 미만	6(18.2)	27(81.8)	33	8.099**	3(37.5)	5(62.5)	8	4.002				
	100-149	26(46.4)	30(53.6)	56		18(48.6)	19(51.4)	37					
	150 이상	26(44.8)	32(55.2)	58		63(63.6)	36(36.4)	99					
분 리 되 지 못 한 이 유													
독립변인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2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2 값 및 유의도		
		방이 모자라서	아이가 원 치 않아서	미처생각 하지못해	계		방이 모자라서	아이가 원 치 않아서	미처생각 하지 못해	계			
주거소유 형태	자 가	20(40.8)	21(42.9)	8(16.3)	49	2.402	26(56.5)	8(17.4)	12(26.1)	46	6.393*		
	비자가	28(52.8)	15(28.3)	10(18.9)	53		13(92.9)	0(0.0)	1(7.1)	14			
방 수 (개)	2이하	37(69.8)	10(18.9)	6(11.3)	53	22.893***	4(100.)	0(0.0)	0(0.0)	4	9.538*		
	3	9(48.6)	18(48.6)	10(27.0)	37		27(75.0)	4(11.1)	5(13.9)	36			
	4이상	4(26.7)	9(60.0)	2(13.3)	15		8(40.0)	4(20.0)	8(40.0)	20			

*p<.05, **p<.01, ***p<.001

“11세이상”이 적당하다는 반응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개나 4개이상인 경우에는 약 54%가 “7세 이전”이 적절하다는 반응을 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제 취침 분리 여부는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월수입에 따라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주부의 연령, 주거 소유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주부의 연령이 높을 수록, 그리고 주거소유형태가 임대일수록 실제로 이성형제와의 취침분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높았다. 이는 현재 대학생 자녀의 아동기에는 그 시대의 현실적 여건이 좋지 않아 이성형제가 부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결과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성형제와의 적절한 취침 분리시기라고 생각한 바로 그 시기에 분리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주거소유형태에 따라 두 집단 모두는 방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국민학생 자녀의 경우 방수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방이 모자라서”가 가장 높은 반응(약 70%)을 보였는데 반해 방수가 4개이상인 경우에는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가 60%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여기서 어머니들이 인식한 이성형제와의 적절한 취침 분리시기에 비해서 실제로 그 시기에 이성형제와의 취침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사실과 취침분리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이 주거소유형태나 방수와 같은 주거환경적인 요인임을 볼때, 어머니들이 실제로 이성형제의 취침을 적절한 시기에 분리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않기 때문에 즉, 자가가 아닌 임대이거나 혹은 자가라고 할지라도 가정에 여러개의 방을 소유하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4) 자녀가 자기방을 원하는 이유

자녀가 자기방을 원하는 이유는 국민학생 어머니 집단의 경우 자녀의 성별에 따라,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남편의 직업,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표 1-5).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여아는 “자기방을 스스로 장식하고 싶어서”가 약 41%를 차지한데 비해 남아인 경우에는 23%만이 그런 반응을 보여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실내장식에 더 높은 관심과 적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5) 형제가 각방을 원할 시 대처 방법

형제가 한방을 사용하다가 각 방을 원할 때의 대처방법은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남편학력에 따라,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가족수, 출생순위, 남편의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1-6).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배치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비율이 약 41%로 나타나 중졸이하(11%)나 고졸(19%)의 경우보다 대처방법이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자녀실 내부 계획시 고려사항

자녀실 내부 계획시 가장 고려할 사항은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남편의 직업, 남편학력, 주부학력에 따라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1-7).

특히 국민학생 어머니 집단의 경우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관리직·전문직인 경우에는 자녀실 내부를 계획할 때 가구배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판매직인 경우에는 벽지·바닥지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에 차이를 볼 수 있다. 사실 자녀실이 너무 형식성을 중시하여 부자유스러우면 자유활동이 저해되어 창조력이 육성되지 못하게 되고, 성인들의 역할이나 주의를 요하는 시설보다는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게되면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새로운 것을 찾아 그 활동을 즐거워 하게 될 것이다.

(7) 자녀실의 가구, 용품 교체시기

자녀실의 가구나 용품 교체시기는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남편의 연령, 남편의 직업, 월수입, 주부학력에 따라, 대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가족수, 남편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8).

〈표 1-5〉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의 자기방 소유에 대한 이유

독립 변인	구 분	자 기 방 을 원 하 는 이 유											
		국민학생 자녀				계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계	χ ² 값 및 유의도
		방해없이 공부가능	장식하고 싶어서	간섭받지 않으려고	방해없이 공부가능			장식하고 싶어서	간섭받지 않으려고				
자녀의 성별	남	46(50.0)	21(22.8)	25(27.2)	92	8.393**	21(22.6)	15(16.1)	57(61.3)	93	0.101		
여	45(43.7)	41(40.8)	16(15.5)	103	19(22.6)		15(17.9)	50(59.5)	84				
남편의 직업	근로·숙련직	25(50.0)	15(30.0)	10(20.0)	50	0.724	2(11.1)	2(11.1)	14(77.8)	18	13.490*		
	판매직	20(44.4)	14(31.1)	11(24.4)	45		13(19.1)	12(17.6)	43(63.2)	68			
	사무직	31(47.7)	21(32.3)	13(20.0)	65		20(39.2)	7(13.7)	24(47.1)	51			
	관리·전문직	15(44.1)	12(35.3)	7(20.6)	34		4(11.8)	8(23.5)	22(64.7)	34			
월수입 (만원)	100 미만	28(60.9)	10(21.7)	8(17.4)	46	5.954	7(53.8)	2(15.4)	4(30.8)	13	9.629*		
	100-149	33(45.8)	25(34.7)	14(19.4)	72		7(15.2)	10(21.7)	29(63.0)	46			
	150 이상	30(39.0)	28(36.4)	19(24.7)	77		26(22.0)	18(15.3)	74(62.7)	118			

*p<.05, **p<.01

〈표 1-6〉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형제가 각 방을 원할 때 대처방법

독립 변인	구 분	형제가 각 방을 원할때 대처 방법											
		국민학생 자녀				계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계	χ ² 값 및 유의도
		커튼·칸막이사용	가구배치	자녀에게이해시킴	이사를간다			커튼·칸막이사용	가구배치	자녀에게이해시킴	이사를간다		
가족수 (명)	3 미만	3(12.0)	6(24.0)	13(52.0)	3(12.0)	25	9.580	0(0.0)	5(41.7)	4(33.3)	3(25.0)	12	15.000*
	4	7(5.8)	33(27.5)	61(50.8)	19(15.8)	120		3(5.0)	22(36.7)	28(46.7)	7(11.7)	60	
	5 이상	2(3.3)	10(16.4)	44(72.1)	5(8.2)	61		4(3.4)	25(21.4)	81(69.2)	7(6.0)	117	
출생 순위	말이	8(5.0)	39(24.4)	92(57.5)	21(13.1)	160	7.764	3(2.7)	30(27.0)	71(64.0)	7(6.3)	111	17.212*
	막내	1(6.3)	1(6.3)	11(68.8)	3(18.8)	16		0(0.0)	7(46.7)	7(46.7)	1(6.7)	15	
	중간	0(0.0)	1(10.0)	0(0.0)	0(0.0)	1		4(7.4)	11(20.4)	33(61.1)	6(11.1)	54	
	외동	3(10.3)	8(27.6)	15(51.7)	3(10.3)	29		0(0.0)	4(44.4)	2(22.2)	3(33.3)	9	
남편 직업	근로직·숙련공	3(5.7)	10(18.9)	33(62.3)	7(13.2)	53	3.306	0(0.0)	3(16.7)	14(77.8)	1(5.6)	18	19.506*
	판매직	4(7.8)	14(27.5)	28(54.9)	5(9.8)	51		0(0.0)	18(25.0)	50(69.4)	4(5.6)	72	
	사무직	2(3.1)	16(24.6)	38(58.5)	9(13.8)	65		4(7.3)	12(21.8)	32(58.2)	7(12.7)	55	
	관리직·전문직	2(5.6)	9(25.0)	19(52.8)	6(16.7)	36		3(7.9)	16(42.1)	14(36.8)	5(13.2)	38	
남편 학력	중졸이하	1(2.7)	4(10.8)	26(70.3)	6(16.2)	37	14.125*	0(0.0)	3(15.0)	15(75.0)	2(10.0)	20	9.958
	고졸	7(6.4)	21(19.3)	65(59.6)	16(14.7)	109		3(3.5)	19(22.4)	58(68.2)	5(5.9)	85	
	대졸이상	3(6.1)	20(40.8)	21(42.9)	5(10.2)	49		4(5.2)	26(33.8)	37(48.1)	10(13.0)	77	

*p<.05

〈표 1-7〉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실 내부 계획시 고려사항

독립변인	자녀실 내부 계획시 고려 사항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가구선정	가구배치	벽지·바닥지	그외장식	계		가구선정	가구배치	벽지·바닥지	그외장식	계	
남편 직업	근로직·숙련공	12(22.2)	17(31.5)	16(29.6)	9(16.7)	54	19.233*	5(27.8)	4(22.2)	9(50.0)	0(0.0)	18	11.548
	판매직	10(19.6)	16(31.4)	19(37.3)	6(11.8)	51		19(26.4)	33(45.8)	17(23.6)	3(4.2)	72	
	사무직	11(15.7)	29(41.4)	20(28.6)	10(14.3)	70		9(16.4)	30(54.5)	15(27.3)	1(1.8)	55	
	관리직·전문직	1(2.6)	26(68.4)	6(15.8)	5(13.2)	38		11(28.9)	18(47.4)	9(23.7)	0(0.0)	38	
월 수입	100이하	9(19.1)	14(29.8)	16(34.0)	8(17.0)	47	6.754	2(13.3)	7(46.7)	6(40.0)	0(0.0)	15	12.530*
	100-149	10(12.3)	33(40.7)	27(33.3)	11(13.6)	81		11(22.9)	15(31.3)	21(43.8)	1(2.1)	48	
	150이상	15(17.6)	41(48.2)	18(21.2)	11(12.9)	85		34(27.0)	64(50.8)	25(19.8)	3(2.4)	126	
남편 학력	중졸이하	6(16.7)	14(38.9)	10(27.8)	6(16.7)	36	18.783**	6(30.0)	8(40.0)	6(30.0)	0(0.0)	20	5.463
	고졸	18(15.9)	35(31.0)	44(38.9)	16(14.2)	113		17(20.0)	37(43.5)	28(32.9)	3(3.5)	85	
	대졸이상	6(11.3)	34(64.2)	7(13.2)	6(11.3)	53		21(27.3)	39(50.6)	16(20.8)	1(1.3)	77	
주부 학력	중졸이하	15(22.7)	24(36.4)	18(27.3)	9(13.6)	66	13.884*	17(26.2)	22(33.8)	24(36.9)	2(3.1)	65	6.796
	고졸	14(11.8)	46(38.7)	41(34.5)	18(15.1)	119		24(24.0)	51(51.0)	23(23.0)	2(2.0)	100	
	대졸이상	1(5.9)	13(76.5)	2(11.8)	1(5.9)	17		6(26.1)	12(52.2)	5(21.7)	0(0.0)	23	

*p<.05, **p<.01

〈표 1-8〉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실의 가구, 물품 교체시

독립변인	자녀실의 가구, 물품 교체시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성장단계에 맞게	아이가 싫증낼때	오래되고 낡았을때	계	성장단계에 맞게		아이가 싫증낼때	오래되고 낡았을때	계			
가족 수	3명 이하	19(73.1)	0(0.0)	7(26.9)	26	2.735	9(75.0)	3(25.0)	0(0.0)	12	15.248**		
	4명	83(66.4)	5(4.0)	37(29.6)	125		38(64.4)	1(1.7)	20(33.9)	59			
	5명 이상	43(63.2)	1(1.5)	24(35.3)	68		68(58.2)	6(5.1)	43(36.8)	117			
남편 연령 (세)	39 이하	68(70.1)	0(0.0)	29(29.9)	97	14.262**	1(100.)	0(0.0)	0(0.0)	1	4.682		
	40-49	77(65.3)	6(5.1)	35(29.7)	118		52(69.3)	4(5.3)	19(25.3)	75			
	50 이상	0(0.0)	0(0.0)	4(100.)	4		62(55.4)	6(5.4)	44(39.3)	112			
남편의 직업	근로·숙련직	29(52.7)	2(3.6)	24(43.6)	55	20.323**	12(66.7)	0(0.0)	6(33.3)	18	4.766		
	판매직	46(85.2)	0(0.0)	8(11.8)	54		38(53.5)	5(7.0)	28(39.4)	71			
	사무직	39(55.7)	3(4.3)	28(40.0)	70		37(67.3)	2(3.6)	16(19.1)	55			
	관리·전문직	31(79.5)	1(2.6)	7(17.9)	39		26(68.4)	2(5.3)	10(26.3)	38			
월 수입 (만원)	100 미만	29(58.0)	0(0.0)	21(42.0)	50	15.101**	11(73.3)	0(0.0)	4(26.7)	15	3.952		
	100-149	46(56.8)	3(3.7)	32(39.5)	81		27(57.4)	1(2.1)	19(40.4)	47			
	150 이상	70(79.5)	3(3.4)	15(17.0)	88		77(61.1)	9(7.1)	40(31.7)	126			
남편 학력	중졸이하	22(57.9)	1(2.6)	15(39.5)	38	4.402	8(40.0)	2(10.0)	10(50.0)	20	10.578*		
	고졸	74(64.3)	3(2.6)	38(33.0)	115		47(56.0)	4(4.8)	33(39.3)	84			
	대졸이상	41(75.9)	2(3.7)	11(20.4)	54		57(74.0)	3(3.9)	17(22.1)	77			
주부 학력	중졸이하	37(52.9)	1(1.4)	32(45.7)	70	15.259**	35(54.7)	3(4.7)	26(40.6)	64	6.198		
	고졸	88(72.7)	3(2.5)	30(24.8)	121		60(60.0)	6(6.0)	34(34.0)	100			
	대졸이상	12(70.6)	2(11.8)	3(17.6)	17		19(82.6)	1(4.3)	3(13.0)	23			

*p<.05, **p<.01

특히 국민학생 어머니 집단인 경우 월수입이 150만원이상인 경우는 100만원미만이거나 100-149만원인 경우보다 자녀실이 가구, 물품교체시기에서 상당 단계에 맞게한다는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오래되고 낡았을때 교체해준다는 문항에서는 월수입이 100만원미만이거나 100-149만원이하인 경우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주었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성장발달에 맞게 구나 물품을 구비해주어 교체해 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고 여겨진다.

(8) 자녀실의 가구 또는 용품 구입시 고려사항

자녀실의 가구 또는 용품 구입시 고려사항은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서만 가족수, 출생순위, 주거양식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9).

즉, 가족수가 4명(85%)이거나 5명이상(88%)이 3명이하(67%)인 경우에 비해 자녀실의 가구나 용품을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에서 실용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실용성에 있어서 자녀의 출생순위가 외동인 경우(66.7%)는 맏이(86%)나 막내(93%), 중간(87%)인 위치에 비해 실용적인 측면을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자녀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국민학생 어머니 집단의 경우 주부의 연령에 따라, 대학생 어머니 집단의 경우 자녀의 성별, 남편직업, 남편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10).

특히 대학생 어머니 집단의 경우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이거나 관리직·전문직인 경우가 근로자·숙련공이거나 판매직인 경우보다 그리고 남편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중졸이하나 고졸인 경우보다 자녀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반응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10) 자녀실의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어머니의 확신도

자녀실의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어머니의 확신도는 대학생 어머니 집단의 경우 가족수, 주부학력에 따라, 두집단 모두에 있어서는 월수입, 남편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11).

특히 대학생 어머니 집단의 경우 월수입이 적을수록 그리고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실의 주거환경조성시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는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나 문헌에 의존한다는 반응은 다른 항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녀실 조성에 주된 책임

<표 1-9>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실의 가구 또는 용품 구입시 고려사항

독립변인	자녀실의 가구 또는 용품 구입시 고려사항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²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²값 및 유의도
		실용성	장식성	가 격	계		실용성	장식성	가 격	계	
가 족 수	3명 이하	21(80.8)	1(3.8)	4(15.4)	26	0.656	8(66.7)	1(8.3)	3(25.0)	12	9.293*
	4명	105(84.0)	5(4.0)	15(12.0)	125		51(85.0)	4(6.7)	5(8.3)	60	
	5명 이상	55(82.1)	4(6.0)	8(11.9)	67		103(88.0)	10(8.5)	4(3.4)	117	
출생순위	맏이	141(82.9)	9(5.3)	20(11.8)	170	3.849	95(85.6)	10(9.0)	6(5.4)	111	12.901*
	막내	12(75.0)	0(0.0)	4(25.0)	16		14(93.3)	1(6.7)	0(0.0)	15	
	중간	2(100.)	0(0.0)	0(0.0)	2		47(87.0)	4(7.4)	3(5.6)	54	
	외동	26(86.7)	1(3.3)	3(10.0)	30		6(66.7)	0(0.0)	3(33.3)	9	
주거양식	양옥	67(81.7)	3(3.7)	12(14.6)	82	1.127	72(92.3)	2(2.6)	4(5.1)	78	10.582*
	한옥	56(81.2)	4(5.8)	9(13.0)	69		30(85.7)	5(14.3)	0(0.0)	35	
	아파트	44(84.6)	3(5.8)	5(9.6)	52		58(79.5)	7(9.6)	8(11.0)	73	

*p<.05

〈표 1-10〉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자녀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분명히 있다	어느정도 있다	무관하다	계		분명히 있다	어느정도 있다	무관하다	계	
자녀의 성별	남	22(21.6)	72(70.6)	8(7.8)	102	1.411	32(33.0)	57(58.8)	8(8.2)	97	8.148***
	여	31(27.7)	75(67.0)	6(5.4)	112		30(32.6)	62(67.4)	0(0.0)	92	
주부연령 (세)	39 이하	37(20.8)	132(74.2)	9(5.1)	178	27.678***	0(0.0)	1(100.)	0(0.0)	1	2.389
	40-49	16(45.7)	15(42.9)	4(11.4)	35		49(35.5)	84(60.9)	5(3.6)	138	
	50 이상	0(0.0)	0(0.0)	1(100.)	1		13(26.0)	34(68.0)	3(6.0)	50	
남편의 직업	근로·숙련직	20(37.7)	29(54.7)	4(7.5)	53	12.172	3(16.7)	15(83.3)	0(0.0)	18	16.854**
	판매직	15(28.8)	34(65.4)	3(5.8)	52		16(22.2)	53(73.6)	3(4.2)	72	
	사무직	10(14.5)	53(76.8)	6(8.7)	69		24(43.6)	27(49.1)	4(7.3)	55	
	관리·전문직	7(17.9)	31(79.5)	1(2.6)	39		18(47.4)	20(52.6)	0(0.0)	38	
남편학력	중졸이하	8(22.2)	26(72.2)	2(5.6)	36	0.290	4(20.0)	15(75.0)	1(5.0)	20	11.258*
	고졸	27(24.1)	77(68.8)	8(7.1)	112		23(27.1)	56(65.9)	6(7.1)	85	
	대졸이상	13(24.1)	38(70.4)	3(5.6)	54		34(44.2)	43(55.8)	0(0.0)	77	

*p<.05, **p<.01, ***p<.001

〈표 1-1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실의 주거환경조성에 대한 어머니의 확신도

독립변인	자녀실의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어머니의 확신도												
	구 분	국민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대학생 자녀					χ ² 값 및 유의도
		나름대로 지식갖고	정보나문헌에의존	방법몰라 실천못함	전혀생각한적없음	계		나름대로 지식갖고	정보나문헌에의존	방법몰라 실천못함	전혀생각한적없음	계	
가족수 (명)	3 미만	17(70.8)	4(16.7)	2(8.3)	1(4.2)	24	6.175	7(70.0)	3(30.0)	0(0.0)	0(0.0)	10	12.400*
	4	71(62.8)	13(11.5)	22(19.5)	7(6.2)	113		33(55.9)	11(18.6)	12(20.3)	3(5.1)	59	
	5 이상	38(59.4)	6(9.4)	11(17.2)	9(14.1)	64		54(48.6)	13(11.7)	24(21.6)	20(18.0)	111	
월수입	100이하	26(56.5)	5(10.9)	8(17.4)	7(15.2)	46	12.625*	4(26.7)	1(6.7)	6(40.0)	4(26.7)	15	13.480*
	100-149	47(61.8)	11(14.5)	9(11.8)	9(11.8)	76		27(57.4)	3(6.4)	11(23.4)	6(12.8)	47	
	150이상	53(67.1)	7(8.9)	18(22.8)	1(1.3)	79		63(53.4)	23(19.5)	19(16.1)	13(11.0)	118	
남편학력	중졸이하	20(57.1)	2(5.7)	7(20.0)	6(17.1)	35	19.449**	2(11.1)	3(16.7)	8(44.4)	5(27.8)	18	29.039***
	고졸	66(62.9)	9(8.6)	21(20.0)	9(8.6)	105		41(50.6)	7(8.6)	20(24.7)	13(16.0)	81	
	대졸이상	33(67.3)	12(24.5)	4(8.2)	0(0.0)	49		48(64.9)	15(20.3)	7(9.5)	4(5.4)	74	
주부학력	중졸이하	39(59.1)	7(10.6)	13(19.7)	7(10.6)	66	8.881	21(33.9)	7(11.3)	20(32.3)	14(22.6)	62	25.923***
	고졸	71(65.7)	11(10.2)	18(16.7)	8(7.4)	108		57(58.8)	15(15.5)	16(16.5)	9(9.3)	97	
	대졸이상	10(62.5)	5(31.3)	1(6.3)	0(0.0)	16		16(80.0)	4(20.0)	0(0.0)	0(0.0)	20	

*p<.05, **p<.01, ***p<.001

이 있는 주부들이 사실상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이 부족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아동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이미 아동기를 거친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실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조사, 비교해 봄으로써 어머니의 자녀 및 자녀실에 대한 인식을 밝힘과 동시에 자녀실과 자녀의 주거환경을 포함한 생활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녀실에 대한 어머니의 전반적인 의식을 알아봄으로써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의식구조 속에서 자녀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해 주고 자녀의 주거환경의 중요성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자녀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두집단 모두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자녀실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높으나 여러가지 생활환경의 여건상 자녀가 단독으로 방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학생 어머니집단의 경우 어머니 측면에서 본 자녀들의 자기방 소유에 대한 희망 이유나 실제로 자녀들이 자기방을 원하는 이유를 보면 공부기회 증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실의 기능이 학업측면에만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실의 기능에는 놀이, 학업, 취침, 운동, 정서생활 등 모든 생활행위의 측면이 반영되어야만 하는데 학업이외의 기능에 대한 의식이 아동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박인전의, 1994a)에서도 아동이 취침이외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자기방이 아니라 안방(44.5%)으로 나타나 자녀실은 취침이나 공부, 아동용품의 수납기능만 강조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두집단이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점은 이성형제와의 취침 분리시기였다. 즉, 대학생 자녀를 둔 집단에서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7세 이전이 그 이후보다 이성형제와의 취침 분리시기로

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집단이 국민학생 자녀를 둔 집단보다 연령적으로 성에 대해 더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결과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 취침 분리여부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이성형제와의 취침분리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학생 자녀의 아동시절의 현실적 상황이나 여건이 오늘날에 비해 여러가지로 어려워지며 자녀수가 많아 이성형제가 부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전반의 의식수준의 향상을 비롯하여 주택내 공간할애에 큰 영향을 주는 인적 요소인 가족수 및 자녀수의 감소, 젊은 연령층의 의식이 보다 근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학생 어머니와 대학생 어머니의 자녀실에 대한 의식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특히 국민학생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공간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의 신체활동은 신체기술을 숙달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가 시킨다(김태연, 1990). 다시 말해 아동의 운동발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연구(Bailey, 1973)에서도 자녀들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보였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 주는 놀이는 아이들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아동방을 꾸밀 때는 반드시 적절한 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학습과 수면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므로,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놀이, 학습, 수면의 세영역을 기능적으로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이 끝난 대학생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아동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이들의 성장발달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주어지는 공간형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하며, 아동에게도 공간의 여러 기능에 대해 충분한 습득을 하게 하여 올바른 공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

겠다.

그리고 복지적 측면에서 아동과 공간과의 상호간
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고려가 있어
야 하겠다. 즉, 코스틴(1972)은 아동복지를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모든 아동과 청
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고하면서 그러기 위
해서는 아동복지 사업의 근본목적이 달성되도록 가
정생활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카두신
(1980) 역시 아동의 요구가 잘 충족되는 가정이라면
아동복지사업의 필요성은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정내의 복지향상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
금까지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행한 시설공간 즉, 공
적공간(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대해 더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이러한 공적 공
간은 최소한의 시설규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반면 가
정이라는 사적공간에 대해서는 권장규정마저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많이 보내
는 개인적 환경이자 법적으로 권장규정이나 시설규
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주택내 아동공간에 대한 아
동복지적 측면에서의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결과보다
더욱 쉽게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부모들의
아동기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증대와 아울러 부모사
회 교육의 활성화, 아동복지 정책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세대의 주역에 대한 보
다 바람직한 공간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공간사용 방
법의 지도를 위한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적공간인 학교, 유치원 및 유아원, 놀이
시설, 어린이 도서관 등은 물론이고 사적공간인 주
택내에서의 아동공간이나 법적규정을 비교적 적게
받는 놀이방, 마을 놀이터, 주거단지내의 골목 등 아
동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복지학적, 아동학적,
주거학적 측면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진수, "어린이 방에 대한 기대와 실패",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2.

- 2) 김중대, 아동복지론, 서울:형설출판사, 1990.
- 3) 김영모, "한국 빈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복
지정책연구, 1, 1982.
- 4) 김영희, "주거환경이 아동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 5) 김태련, 장휘숙, 발달 심리학, 서울:박영사, 1987.
- 6) 김행신, "주거환경과 자아에 관한 환경심리학적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 7) 김희정, "청소년의 집의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
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8) 박인전의 2인, "아동실의 주거환경 및 이용에 대
한 실태", - 시설복지적 측면에서 본 아동공간
에 관한 연구(I) - 한국주거학회지, Vol.5, No.
1, 1994:a.
- 9) 박인전의 1인, "아동의 주거 및 아동실에 대한 의
식", - 시설복지적 측면에서 본 아동공간에 관한
연구(II) - 한국주거학회지, Vol.5, No.1, 1994:
b.
- 10) 송희영, "어린이방의 실내공간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7.
- 11) 성영혜, 아동복지, 서울:학문사, 1993.
- 12) 안옥희, 실내디자인, 서울:미진사, 1993.
- 13) 안옥희, 박인전,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
동실에 대한 인식", - 시설복 지적 측면에서 본
아동공간(III) -, 영남대 새마을·지역개발연구
제16집 No.1, 1994.
- 14) 안은숙, "아동방의 놀이공간 디자인을 위한 연
구", 숙명여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87.
- 15) 안지연외 2인, "대구시 가정탁아소의 공간활용
에 관한 고찰", 영남대 새마을·지역개발연구
제14집, 1993.
- 16) 윤복자와 3인, 어린이의 주생활, 서울:연세대
출판부, 1984.
- 17) 윤정애, "청소년기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 영남
대교육 대학원 석사논문, 1993.
- 18) 이강민, "놀이, 학습 겸용 아동용 가구 디자인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9.
- 19) 이경희외 2인, 주거학 개설, 서울:문운당, 1993.

- 20) 임미숙외 1인, "아동양육측면에서의 주거공간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 (4), 137-152. 1992.
- 21) 장희숙, 아동 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0.
- 22) 한말숙, "주거환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주거만족도와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23) Kesier, M. B., Housing on Environment for a living, Macmillian Publishing Co., 1978.
- 24) Kathy R. Thornbury, "Apartment Environments and Socialization of Young childr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3, No.3, 1975.
- 25) Mary Gilliatt, Children's rooms, London : Orbis Publishing, 1985.
- 26) Meeks, C. B., Housing,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80.
- 27) Morris, E. W. and M.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 John Willy and Sons, 1978.
- 28) Sunset Magazine, Children's rooms and Play Yards, California Lane Publishing Co., 1983.
- 29) Tanner, J. M. Physical growth. In P. H. Mussen (Ed.), Carn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zrd., Vol.1), New York : Wiley, 1970.
- 30) 湯川利和외 3인 (1985), 子どものための住環境要件に関する研究(2), 住宅研究所報 p.219-230.
- 31) 岩田三千子외 1인 (1988), 住宅書光環境の時系列的變化に関する研究, 大阪市大 生活科學部紀要, 第36卷, pp.99-104